

네터즘 강추

32개 주제어 뽑아 유·불·선의 세계 조명

빛은 동방으로부터 박항용 지음, 증명출판사

'빛은 동방으로부터'는 판사출신 변호사인 박항용씨가 지은 것이다.

이 책을 보면 박 씨가 오랫동안 법과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사색했다는 것이 엿보인다. 인류에게 정신문명의 등불이 되어 온 세계 4대 종교와 사상에 관한 골수를 뽑아 엮었다. 즉 저자는 동서양의 성인들과 철인들이 모두 '자연의 빛'을 상실한 인간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자기탐구'와 '자기완성'의 진리를 설파했다고 강조한다.

이 책은 유불선을 총 망라했다. 그런 다음 그 중에서 32개 주제어를 뽑았다. 글의 내용은 주제어에 관하여 글을 써 내려간 아름답고도 영감어린 메시지가 넘쳐난다. 소제목은 저자가 갑골문(甲骨文)과 금석문(金石文)의 맛을 살려 직접 붓글씨로 쓰고 있다.

'빛은 동방으로부터'는 오늘날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하고 흔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머나먼 길을 떠나는 자에게는 지남이 되고, 고통의 바다를 건너려는 자들에게는 아름다운 나룻배가 될 것으로 보인다. (1509123, book.naver.com/bookdb)



꽃도 별도 파도도 비밀번호도 그대 아닌 것이 있으랴

그 길 위에 내가 있었다 정다혜 지음, 드라마

시를 잘 모르고 시인에 대해서도 잘 모르지만 시어가 정말 가슴에 와 닿는다. 시집을 다 읽었는데도 귀절 하나하나가 기억에 남는다.

그래서 도종환 시인은 정다혜의 시를 '뜨거우면서도 단정하다'고 표현 한 것 같다.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굳어지기 하나 없이 잘 정돈되어 있다는 느낌이 든다.

정다혜 시인의 시 속의 화자에게는 천지가 다 '그대'이다. 꽃도 별도 비밀번호도 파도도 그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강물처럼 흘러 그대에게 가는 간절한 그리움의 언어 아닌 것이 없다. 그러나 좀처럼 수 없는 그대와의 거리 때문에 시 한 편 한 편이 대못처럼 아프게 살에 박혀 있는 이의 가슴을 찌른다.

사랑을 시작하고 아파하는 많은 연인들에게 권해주고 싶은 시집이다. 책장에서 여러 권을 구입해 주변 사람들에게도 권해주고 싶은 생각이 저절로 든다.

한 가지 아쉬운 점. 정다혜 시인의 친필 시인이 있다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beingthee, book.naver.com/bookdb)



책속의 밑줄긋기

○...어찌하여 우리는 변했을까?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이해에 따라서 이것이나 저것이 되었다.

우리는 자신이 남자나 여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자신이 선생님이거나 군인, 정신과 의사라고 믿는다. 우리는 자신이 젊거나 늙은 사람, 동등하거나 마른 사람, 행복하거나 불행한 사람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자신이 미국인이거나 인도인, 러시아인이거나 아랍인, 힌두교인이거나 기독교인, 이슬람교인이거나 유대교인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실상 우리 안에 있는 진리는 하나다. 우리 모두는 같은 씨앗에서 나오며, 그 씨앗은 신이다. 우리는 단지 다른 배어들 뿐이다.

만일 우리가 이런 배어들 밑에 있는 우리 자신의 신성을 통찰할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는 자신이 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본문 22쪽 중에서, 스와미 목타난다 지음, 김병채 역, 슈리크리슈나다사시람



넓고 깊은 그림책의 세계로 오세요



마음이 흐린날엔 그림책을 펴세요

아나기다 구니오 지음 | 한명희 역 | 수희재 | 1만2000원

나는 매일 할아버지와 산책을 즐기는 동안 할아버지가 초목과 돌과 하늘과 개와 개미와 사람과 그 밖의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차츰 세계가 넓어져 간다.

그러나 동시에 뱀과 개구쟁이와 사나운 개와 자동차들 갖가지 무서운 것들과도 만난다.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가 도와 주는데, 할아버지는 내 손을 꼭 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괜찮아, 괜찮아."

어느 생가나의 의식 속에는 그림이 새겨져, 나는 무슨 말이 있어도 극복하게 되었다. 내가 점차 성장하고 할아버지는 나이가 들어 자리에 눕자 이번에는 내 차례가 되었다. 나는 할아버지에게 말한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요> 중에서



할아버지는 항상 내 손을 잡고 주문을 외우듯 속삭이셨다. "괜찮다"고

저자는 자신의 어머니처럼 늘 공공대면에서 후회하거나 운명을 탓하지 않고, 부지런하게 오늘을 살다 보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온다고 강조한다. 즉 남과 비교하거나 부러워하지 않고, 지위와 부귀에 관계없이 자기 나름으로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이 칭찬받을 사람이 라고.

이 책은 아들바탕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푸석푸석해진 마음에 물기를 되찾아 주고자 쓰여진 그림책 소개서이다. 그림책 한 권 한 권에 대한 예세이를 통해 저자는 인간과 삶에 대한 깊이깊은 애정을 일관되게 보이고 있다.

에피소드를 다양한 그림과 함께 독특한 형식으로 담아낸 이 책은 '생명의 샘, 그림책과의 만남' '하얀 말의 마음을 열어준 세계' '여섯 살 아이의 가슴에 새겨진 동생의 죽음' '슬픔을 살아가는 내일의 양식으로' '인생관을 뒤엎는 사진 그림책' '글자는 마음이 춤추는 흔적' '고릴라로 된 최초의 그림책' '마음이 성장하는 순간' '삶과 죽음 그리고 사랑과 슬픔' '인생에 어떻게 답을 낼 것인가' '상상력을 되찾자' 등의 내용이 소개된다.

<작은집 이야기>(시공주니어), <작다작은 임금님>(미다스북스), <수호의 하얀말>(한림출판사), <흔들다리 흔들흔들>(현암사), <노란 양동이>(현암사), <숲으로>(진선출판사), <숲속에서>(비룡소), <떠돌이 개>(열린책들), <안개속에서 만난 친구>(랜덤하우스 중앙), <프레드릭>(시공주니어) 등 우리나라에서 출간된 책들로 소개되고 있다.

이 책은 그림책을 통해 인간이 얼마나 넓고 깊은 체험을 할 수 있는가를 감동적으로 전해 준다. 어린이를 향해 단순히 꿈을 가지라고 말할 수 없게 된 현실에서, 그림책의 표현 내용과 역할은 훨씬 넓고 깊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 그림책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 내용이 아주 심오하다는 것을 일러준다.

특히 그림책을 읽다보면 인간의 따스함, 흥룡함, 잔혹함, 기쁨과 슬픔, 삶과 죽음 등을 실로 평이하게, 더욱이 밀도 있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재발견하게 된다고 말하는 듯하다.

독자들은 저자의 따스한 시선을 따라가다가 어느 새 자신의 몸도 훈훈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아나기다 구니오는 NHK의 기자 출신으로, 항공기사고 등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위기관리)에 관한 심층보도와 저서로 '본 유대' 국제기자상과 오야 소이치 노년선 상을 수상했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pia.com

메마른 삶에 지친 어른을 위한 '그림책 안내서'

"어쩔 수 없지 뭐."
"어떻게 되겠지 뭐."
"별 일 아니다."

일본 논픽션 작가인 아나기다 구니오는 이토 우 히로시의 <괜찮아, 괜찮아요>(리틀웍스)를 읽고 머릿속에 곧 떠오른 것은 자신의 어머니가 항상 말하던 세 가지였다고 말한다.

42세에 남편과 사별하고 다섯 아이들을 키우느라 빈곤한 생활에 허덕인 어머니가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고 담담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입버릇처럼 세 가지 말을 하고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저자는 이 책 <마음이 흐린날엔 그림책을 펴세요>에서 <괜찮아, 괜찮아요>를 그림과 함께 소개하며, 가족 안에서 전승되는 간단한 말이 살아가는 데서 중요한 기둥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 한다. 인간 삶을 지탱해주는 말은 의외로 짧고 간단하다고.



뱀과 개구쟁이와 사나운 개와 자동차 등 갖가지 무서운 것들과도 만날 때마다 할아버지는 나를 도와주셨다.

블서구입은 www.yosiamun.com

양지 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승무북, 모듬북, 장고, 징, 팽과리

-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른니다
- ◆ 전통의 아름다운 그대로 제작 합니다
-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영양만점 다이어트식품

100% 천연

산야초 오곡조청

◆ 산야초 오곡조청 한 술감에는 한겨울의 영양분이 농축 되어 있습니다. 오곡 (쌀, 수수, 조, 검정쌀, 옥수수)와 옛 질금(100% 국내산)만을 써서 몸에 이로운 산야초 달인 물과 함께 정성껏 삭혀 만든 전통식 조청입니다.

옛날, 병약한 어느 스님은 오곡조청과 생수만을 드시고 백일 기도정진하여 지병의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기도정진할 때, 여행 다닐 때, 땀·턱 드실 때 속을 편하게 하고 든든한 요기가 되어주는 영양간식!

산야초 오곡조청은 불자님들의 좋은 인연입니다.

영양만점 다이어트식품 **산야초 오곡조청** 1.2kg = 48,000원

천연물엿 **웰빙자연당** 1.1kg = 18,000원 × 2병

산사조청원의 명품

뜻이오르지않는 **산사참꽃 조청** 1.2kg
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6년근 신도라지로 만든 **산사약도라지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가래,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 주문전화 : 054)372-3166
● 입금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회)

맑은 마음 깊은 정성 산사조청원

바로보인의 책들 대한문지현선사님서신역사 / 조가사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 5권 출간>

과학도 밝히지 못한 태초와 우주탄생의 비밀, 더불어 웅장한 우리의 고대사를 밝혀놓은 환단고기, 근원성품으로부터 비롯하여 전우주, 지구권으로 이어온 광대무변의 역사와 진리를 전강대선사의 인가제자인 대한문지현 선사님께서 일제강점기를 통틀어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밀철하게 바로보셨다.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 1,2권 출간>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는 대한문지현 선사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한 선 수행 문답집이다. 깨달아 사무친 경사에 대한 이렇게 밀철한 절결과, 오후보림에 대한 이토록 구체적인 수행법 제시와, 최초의 무명파 우주생명의 원리까지 온전하게 통달하여 남달리 설한 이러한 법문은 여태까지 없었다.

☎(02-522-0122) www.zenparadise.com

인비록 人秘錄 www.heaven777.com

죽어서 가는 길

"놀랍게도 사람의 사후세계란 세상에 알려진 그 어떤 모습과도 달랐다"

해광 하순천 지음/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372쪽/15,000원

해광 하순천 관법명인이 밝히는 하늘도의 기도와 수도의 과정, 사후세계의 비밀, 전생과 현생, 신의 세계에 대한 갖가지 궁금증에 대한 명쾌한 해답, 책으로 출간되다!

1부 **신도(神道)를 닦다**
하늘의 도를 만나 저자 자신이 직접 체험하게 된 세계, 저자가 하늘도의 세계에 입문해 성장해가는 과정, 그 과정중 증거인이 되어 증거하게 된 하늘 일화에 대한 생생한 기록.

2부 **죽어서 가는 길**
사후세계의 비밀, 사람의 사후세계의 세 가지 모습, 당신의 선택은 어느 방향으로...?

3부 **전생과 현생**
저자 자신이 직접 본 자신의 전생, 그리고 사람들의 전생 이야기 자신을 뒤엎은 업과 실과 가피에 대한 진정한 통찰과 깨달음

4부 **내가 본 신의 세계**
신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줄 해답들이 저자 자신의 체험, 기도, 수도의 과정과 결과를 통해 일목요연하게 제시되어 있다.

문의 : 도서출판 대도대한
전화 063) 643-7285 / 팩스 063) 643-7782